

成人女性の 衣服디자인 選好도와 自我概念과의 關係性 研究

李 美 庚* · 李 仁 子

(建國大學校 家政大學 衣裳學科)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lf-Concept and Preference in Clothing Design

Mi-kyung Lee and In-Ja Lee

Dept. of Apparel Design, College of Home-Economics, Kon Kuk University

(1984.12.10 접수)

Abstract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survey, the relationships between women's self-concept and preference in clothing design.

For the measurement of the self-concept scale was to select the somatic self and the social self which were explained Jung Won Sik's.

The preference rate in clothing design consists of 58 items and 3 factors. (color, form, and texture).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a sample of women (between the ages of 20 and 50) who lived in Seoul, Korea.

The data for 658 respondents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χ^2 -test, F-test and Duncan-test.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s were founds;

1.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the self-concept and the preference for clothing color in value, chroma and warmth.
2.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the self-concept and the preference for clothing form in line, silhouette and style.
3.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the self-concept and the preference for texture in touch, thickness, weight and luster.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 of clothing design according to their age. That was largely divided into two groups; one's 20's and the others 30's~40's.

I. 緒 論

McJimsey¹⁾는 人間의 自我正體感(self-identity)과

* 홍성 혜진 전문대학 의상과

* Lecture, Dept. of Apparel Design, Hae Jeon Junior College.

個性表現(self-expression)에 대한 渴望은 自己主張과 認知的 普遍的인 欲求의 한 부분이 된다고 하였다. 女性은 특히 成人期에 들어서면서 情緒的으로 安定되코²⁾ 衣服에서 自身을 발견하며 自信心을 發達시키므로³⁾ 그들의 自我概念에 따라 感情的인 經驗에 依한 選好도는 衣服의 外的 形態에서도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

로, 本 研究에서는 自我概念을 身體的 自我와 社會的 自我로 구분한 M.S. Ryan의 理論¹¹⁾을 바탕으로, 成人 女性들이 選好하는 衣服디자인이 自我概念(身體的 自我·社會的 自我)과 어떤 關係가 있는가를 說明하고, 부가적으로 年齡에 따라 選好하는 衣服디자인의 差異를 조사하고자 시도되었다.

II. 文獻的 考察

本 研究와 관련되는 文獻을 몇 측면에서 要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身體的 自我와 衣服〉: 身體的 自我(Somatic-Self)는 物質的인 自己(Material Me), 自我의 擴張, 身體像(Body Image), 신체적 만족도(Body Cathexis) 등으로 說明될 수 있다. 衣服은 우리의 身體를 대상으로 認識되고, 身體에 대한 관심은 衣服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어 個人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¹²⁾. J.M. Ford와 M.F. Drak(1982)¹³⁾ 등은 自負心이 높고 身體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衣服을 통해 독특한 自己透寫를 할 수 있으며 다소 科學的 方法으로 自身을 表現한다고 밝혔다. 양명희(1983)¹⁴⁾는 勤勞女性을 대상으로 한 研究에서 自身の 身體的인 狀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獨특한 디자인이나 色을 선택하여 個性表現에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社會的 自我와 衣服〉: 社會生活를 하는 데 있어서의 自己存在에 대한 知覺 또는 認識은 個別的인 것이며, 社會的 根源을 지니므로, 다른 사람들과 有意한 相互作用을 통하여 自我概念이 發達한다¹⁵⁾. 이러한 自我의 發達에 있어서 衣服이 새로운 社會的 役割의 機能을 배우는 데 補佐하며 社會適應의 要因이 되므로, 辛玉順¹⁶⁾과 김광경¹⁷⁾ 등은 對人關係가 좋은 사람일수록 外貌에 관심이 높고, 流行과 관련 있는 衣服行動을 보인다¹⁸⁾고 밝히고 있다.

〈衣服의 色에 對한 選好〉: 문선화(1980)¹⁹⁾ 등은 50대 들 제외된 전 연령층의 여성들이 靑靑색을, 靑山호(1983)²⁰⁾는 부산 시내 女大生들이 靑靑색·靑색의 願으로 選好한다고 지적하였다. 精神病 患者를 對象으로 한 N.H. Compton(1967)²¹⁾의 研究에서 情緒的으로 積極的인 사람은 따뜻하고 밝은 色을 좋아하고, 情緒的으로 우울하고 身體的으로 非積極的인 患者는 차가운 色을 選好한다고 밝혔다.

〈衣服의 形態에 對한 選好〉: 線의 形態에 대한 嗜好를 女大生을 대상으로 한 研究에서 衣服에 表現된 線은 直線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들은 美術에 興

미가 높으며 男性的 性格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15, 19)}. 또한 좋아하는 윤곽선에 대해서는 여성적인 느낌이 나는 A-Line形(Bell)이 가장 많았고¹⁷⁾ 이들은 生物에 흥미가 있었다¹⁹⁾. A. Hoffman(1956)은 成人女性의 價値觀과 衣服과의 研究에서 社會的 價値觀이 높은 사람은 드레시한 옷을 좋아한다고 하였다¹⁴⁾.

〈옷감에 대한 選好〉: A.M. Creekmore(1963)²²⁾의 研究에 의하면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衣服의 質感에 대해 관심이 높고, 特定한 衣服을 象徵的 意味로 使用하였다. 또한 옷감에 대한 選好도와 피부색, 身體的인 조건 사이에는 有意한 關係가 없다고 發表되었다²³⁾. 비만 여대생과 정상적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옷감의 色相과 디자인 選好도를 調査한 L.B. Matthews²⁴⁾는 비만 여대생의 경우 自身の 體形에 만족하고 잘 認知하고 있을수록 날씬해 보이는 옷감을, 정상적인 女大生은 體形이 잘 나타나는 옷감을 選擇하는 傾向이 있다고 報告하였다.

III. 假 說

本 研究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零假說을 세웠으며, 그외에 附加的 關心의 問題도 밝혀 보고자 한다.

假說 (1). 選好하는 衣服의 色과 自我概念(身體的 自我·社會的 自我)과는 有意한 關係가 있을 것이다.

假說 (2). 選好하는 衣服의 形態와 自我概念(身體的 自我·社會的 自我)과는 有意한 關係가 있을 것이다.

假說 (3). 選好하는 衣服의 質感과 自我概念(身體的 自我·社會的 自我)과는 有意한 關係가 있을 것이다.

〈附加的 關心〉

• 選好하는 衣服 디자인과 年齡과의 關係

IV. 研究方法 및 節次

A. 測定道具

(1) 自我概念 檢査

鄭元植의 標準化된 自我概念 檢査紙²⁵⁾중에서 身體的 自我·社會的 自我·自我評價 46問項만을 골라 本 研究에 使用하였으며 自我評價에서 10% 미만인 15점 이하인 질문지와 99% 이상인 49.5점 이상인 것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점수이므로 除外시켰다²⁶⁾. 被驗者는 各 問項을 읽고 5단계 評定法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으며 身體的 自我는 身體에 대한 自身の 見解, 건강상태, 身體的 外貌·才能·性的 魅力 등을 말하고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自己의 신체심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며, 낮은 사람은 자기의 身體狀況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社會的 自我는 他人과의 人間關係에서 自身이 보는 觀念體制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은 사람은 對人關係에서 원만한 社會生活를 하고 있고, 낮은 사람은 소외되어 있거나 除外된 불행한 인간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衣服 디자인 選好度 검사

연구범위로는 봄에 출근할 때 입을 옷과 집에서 입는 平常服에서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을 측정하기 위해 衣服의 色, 衣服의 形態, 材質의 3개 下位尺度로 나누었다. 設問項目은 쌍으로 비교하는 법과 선택법으로 구성되며, 비교법은 5단계 평정법으로 점수화시켰다. 질문 내용은 先行研究에서^{15,16)} 사용한 질문지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pre-test에 의해 신뢰도가 인정된 문항만을 골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1. 衣服의 色

① 色相: 일정한 윤곽선위에 유채색·무채색 색상지를 18가지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그 종류는 <表 1>과 같다²³⁾.

② 명도: 이두운 색과 밝은 색을 비교하였는데 5문항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밝은 색을 選好한다. 가능한 점수는 5~25점까지였으나, 실제로 7~25점으로 나타났고 평균치는 15.6이었다.

③ 채도: 선명한 색과 탁한 색을 비교하였는데 5문항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탁한 색을 選好한다. 가능한 점수는 5~25점까지였으나 실제 점수는 10~21점이었고 평균치는 16.2였다.

④ 한난: 찬 색과 따뜻한 색을 비교하였는데 5문항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따뜻한 색을 選好한다. 가능한 점수는 5~25점이었으나 실제 점수는 9~24

점이었고 평균치는 16.8이었다.

⑤ 배색: 동색배색과 보색배색을 비교하였는데 5문항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보색으로 배색하는 것을 選好한다. 가능한 점수는 5~25점이었으나 실제 점수는 5~23점으로 나타났고 평균치는 12.4였다.

2. 衣服의 形態

① 線의 形態: 외출복과 평상복을 line drawing으로 표현하여 구선선이나 장식선을 直線과 曲線으로 비교하였으며 6문항으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曲線을 選好하며 가능한 점수는 6~30점이었으나 실제점수는 9~27점으로 나타났고, 평균치는 17.7이었다.

② 윤곽선: Bell 形과 Bpx 形을 비교하였으며 5문항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Box 形을 選好한다. 가능한 점수는 5~25점이었으나 실제 점수는 6~25점으로 나타났고, 평균치는 15.7이었다.

③ 스타일: 드레시한 形과 스포오티한 形으로 비교하였으며 5문항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포오티한 스타일(캐주얼)을 選好한다. 가능한 점수는 5~25점이고 실제점수도 5~25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치는 16.6이었다.

3. 재 질 <質 感>

① 촉감: 외출복과 평상복에서 뻣뻣한 옷과 부드러운 옷을 비교하였는데 4문항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드러운 촉감을 選好한다. 가능한 점수는 4~20점이었으나 실제 점수는 5~20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치는 13.8이었다.

② 두께: 두꺼운 옷과 얇은 옷을 비교하였는데 4문항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두께가 얇은 옷을 選好한다. 가능한 점수는 4~20점이었으나 실제점수는 5~20점으로 나타났고 평균치는 14.0이었다.

③ 중량: 무거운 옷과 가벼운 옷을 비교하였으며 4문항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벼운 옷을 選好한다. 가능한 점수는 4~20점이었으나 실제점수는 6~19점으로 나타났고 평균치는 13.5였다.

④ 광택: 광택 있는 옷과 광택 없는 옷을 비교하였는데 4문항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광택이 없는 옷을 選好한다. 가능한 점수는 4~20점이었으나, 실제점수는 5~19점으로 나타났고 평균치는 13.5였다.

⑤ 투명: 비치는 감과 비치지 않는 감을 비교하였는데 4문항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치는 옷을 選好한다. 가능한 점수는 4~20점이고 실제점수도 4~20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치는 9.62였다.

<表 1> 색상기호

색 이 름	색 상 기 호	색 이 름	색 상 기 호
핑크	1-18-5	짙은 색	12-16-6
다홍	2-14-8	하늘색	17-18-2
주황	5-16-7	바다	16-18-4
꿀색	7-18-6	남보라	22-12-5
노랑	9-19-5	붉은보라	23-18-5
상아	8-19-2	흰색	0-10-0
갈색	6-14-4	회백색	0-19-0
인도	10-18-5	진회색	0-11-0
올리브	9-14-3	검정색	0-10-0

<무늬>

사실적인 꽃무늬, 기하학적 무늬, 점 무늬, 전통무늬, 추상무늬, 무늬없는 것을提示하여選擇하도록 하였다.

B. 標準對象 및 資料蒐集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成人女性중 20세부터 50세까지로制限하여 職場과 學校를 통해 標集하였다. 檢査實施는 3월 15일부터 한달간 行하여 있으며 최종적으로 658部를 통계처리하였다.

年齡別로 볼때 20代는 514명으로 78%, 30代는 79명으로 12%가 40代는 65명으로 10%가 標集되었다.

V. 研究結果 및 論議

A. 衣服디자인 選好度와 自我概念과의 關係

<假說 1.2.3>을 檢證하기 위해 衣服디자인 變因과 自我概念 變因과의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를 算出하였으며 그 結果는 <表 2>~<表 4>와 같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衣服의 色과 自我概念과의 關係

명도는 身體的 自我와 社會的 自我에서 正的인 相關을 보여 밝은 色의 옷을 즐기 는 사람일수록 自身的 身體的 狀況에 肯定的이고 自信을 갖고 있을뿐 아니라 他人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對人關係에서 원만한 社會生活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도에 있어서는 身體的 自我와 社會的 自我에서 負的 相關을 보여 흐리고 탁한 色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自身的 身體的 狀況에 부정적이며 對人關係에서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A. Latzke와 H. P. Hostetter²¹⁾가 내성적인 사람은 칙칙하게 가라 앉은 色을 選擇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제시한 理論과 符合되고 있다.

<表 2> 衣服의 色變因과 自我概念變因의 積率相關係數 N=658

의복색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	
		신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
명도	도	.14***	.13***
채도	도	-.10**	-.10*
한반	반	.13***	.07*
배색	색	.03	.01

*p<.05
**p<.01
***p<.005

<表 3> 衣服의 形態變因과 自我概念變因의 積率相關係數 N=658

형태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	
		신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
선		.02	.02
운곽선	선	.006	.03
스타일		-.04	-.006

한난에 있어서 身體的 自我·社會的 自我와는 正的인 相關을 보여 따뜻한 色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身體的 狀況에 肯定的이고 對人關係에서도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따뜻한 色을 좋아하는 사람은 外向的이며,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 들이고 社會變化에 빨리 적응한다고 報告된 것¹⁹⁾을 相起할때 따뜻한 色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他人과의 關係에서 外向的이고 社會的이며 잘 어울리는 한편, 自身の 身體에도 만족하고 肯定的인 態度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배색에 대한 選好는 身體的 自我와 社會的 自我에서 有意한 關係가 나타나지 않았다.

2. 衣服의 形態과 自我概念과의 關係

綫의 形態·운곽선·스타일에 對한 選好는 身體的 自我·社會的 自我와 有意한 關係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女性들이 綫에 대한 느낌에 민감하고, 形態에 있어서 개성적인 것을 選好하나 뚜렷한 嗜好가 없다고 한 研究結果²⁰⁾를 相起할때 衣服의 形態에 대한 選好는 自我概念보다 다른 心理的 要因들이 작용된다고 풀이 된다.

3. 衣服의 質感과 自我概念과의 關係

촉감은 身體的 自我, 社會的 自我와 正的인 相關을 보여, 부드러운 옷감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自身的 身體的 狀況에 肯定的인 한편, 對人關係에서도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옷감의 두께에 있어서는 身體的 自我와 正的인 相關이 있으나 社會的 自我와는 有意한 相關이 없어, 自身の 身體的 狀況에 肯定的인 사람일수록 얇은 옷감의 옷을 選好한다고 볼 수 있다.

중량은 身體的 自我·社會的 自我와 正的인 相關이 있어 가벼운 옷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他人과의 關係에서 원만하고, 自身の 身體的인 狀況에 肯定的인 옷을 알 수 있다.

광택의 정도에 대한 選好는 身體的 自我·社會的 自我와 負的인 相關이 있어 광택이 없는 옷을 좋아할수록 自身的 身體에 대해 自信感을 갖지 못하고 對人關係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 衣服의 質感變因과 自我概念變因과의 積率相關係數 N=658

질감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실제치	기대치	실제치	기대치
촉	감	.12**		.08*	
두	께	.13***		.05	
중	량	.14***		.09*	
광	택	-.13***		-.11**	
부	명	.05		.03	

*p < .05
 **p < .01
 ***p < .005

투명정도는 身體的 自我와 社會的 自我에서 有意한 關係가 나타나지 않아 男·女大學生을 對象으로 한 研究²⁵⁾에서 身體的 自我는 貞淑性과 相關이 없었던 점과 一致한다.

以上的 結果로 〈假說 1.2.3〉은 部分的으로 否定되었다.

B. 衣服디자인 選好度와 年齡과의 關係

成人女性의 年齡을 20代, 30代, 40代 세그룹으로 나누어, 選好하는 衣服디자인을 χ^2 -檢證, F-檢證, Dun-

can의 多重범위檢證을 실시하였으며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a. 色相 選好

色相에 대한 選好는 年齡에 따라 差異가 있어 〈表 5〉 20代에서는 핑크·주황·노랑색을, 30代에서는 연두·바다색을, 40代에서는 하늘색·풀색을, 특히 選好하였다. 심리적 측면에서 色彩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온도감인데, 20代에서 따뜻한 색 계통의 옷을 즐겨 입는 것은 어느 연령층보다 外貌에 대해 關心이 높고, 個性을 重視하므로^{27,28)}, 自身의 美的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表現하고자 하는 行動의 發露라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色相抵牾 일정한 윤곽선 위에 제시한 것이므로 衣服의 質感은 무시되었고 補綴에 着정한 것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시기를 조건으로 해석해야 한다. 앞으로 衣服의 色에 대한 選好測定을 위해 훌륭한 도구 개발이 시급한 문제라 생각된다.

b. 배색 選好

배색에 대한 選好는 年齡에 따라 有意한 差異를 나타내〈表 6〉, Duncan의 多重범위 檢證²⁹⁾을 실시하였다(그림 1). 동색배색에 대한 選好는 20代에서 나타나 1974년에 女大生을 대상으로 着정한 것과 10년이 지났으나 一致하고 있다¹⁰⁾.

〈表 5〉 연령에 따른 의부의 색상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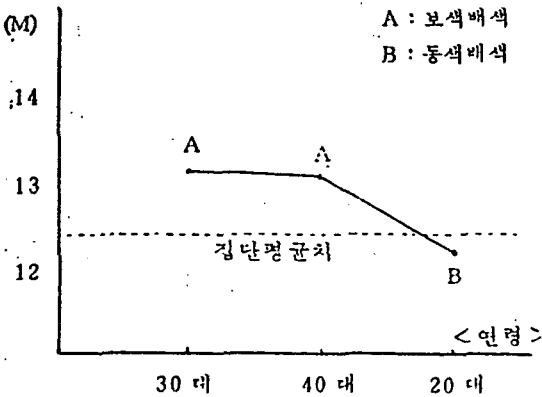
색상	인명	N	20 대		30 대		40 대		計
			실제치	기대치	실제치	기대치	실제치	기대치	
핑크	크	159	145	13	22	15	18	187	
다홍	홍	19	18	3	3	1	2	23	
주황	황	24	21	8	8	2	5	34	
갈색	색	16	17	4	3	2	2	22	
노랑	랑	50	47	8	7	2	6	60	
상아	아	61	59	10	9	5	8	76	
갈색	색	5	7	2	1	2	1	9	
연두	두	16	20	5	3	5	3	26	
울리	리	11	12	2	2	3	2	16	
풀색	색	30	34	6	5	8	4	44	
하늘	색	32	39	7	6	10	5	49	
바다	색	12	13	5	2	0	2	17	
남보	라	6	8.6	2	1	3	1	11	
붉은보	라	6	7	1	1	2	1	9	
회색	색	34	32	5	5	2	4	41	
회색	색	16	16	1	2	3	2	20	
진회	색	4	6	2	1	1	1	7	
검정	정	6	5	0	1	1	1	7	

$\chi^2=49.68$ DF=34 p<.05*

〈表 6〉 연령에 따른 배색 선호

연령	20대	30대	40대	F
	N			
배색	514	79	65	5.38**
배색	12.20 (B)	13.16 (A)	13.10 (A)	

(문자)는 Duncan의 범위 **p<.01.



〔그림 1〕 배색선호와 연령과의 관계

c. 衣服의 形態選好

衣服의 形態 중 스타일에 대한 選好는 年齡에 따라 有意한 差異를 나타냈으며, 〈表 7〉 Duncan의 多重범위 檢證을 실시하여 有意성을 얻었다(그림 2). 스포티한 스타일은 20대에서, 드레시한 스타일은 3·40대에서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티한 스타일이 活動性이 요구되는 20대에서 選好하고 있는 한편, 年齡이 높아짐에 따라 女性的인 스타일을 기대함으로써³⁰⁾, 3·40대에서 드레시한 스타일이 選好된다고 생각한다.

d. 質感選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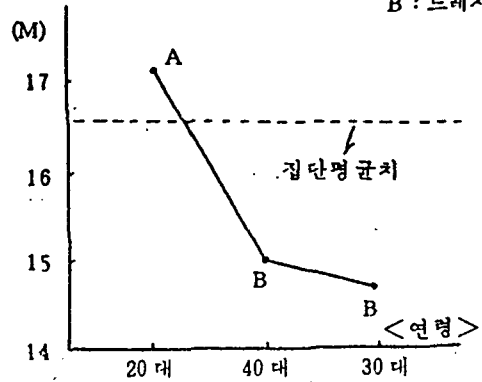
衣服의 촉감·두께·투명에서 年齡에 따라 有意味한 差異가 나타나(表 8), Duncan의 多重범위 檢證을 실시하여 有意성을 얻었다. 年齡이 증가함에 따라 身體의 노출을 꺼리고 눈에 띄지 않는 靛安한 衣服을 좋아

〈表 7〉 연령에 따른 의복의 형태 선호

의복 형태	연령	20대	30대	40대	F
	N				
선	514	17.69	18.01	17.40	25.55**
윤곽선	79	15.56	16.05	16.41	
스타일	65	17.12 (A)	14.74 (B)	15.00 (B)	

(문자)는 Duncan의 범위 **p<.01

A : 스포티
B : 드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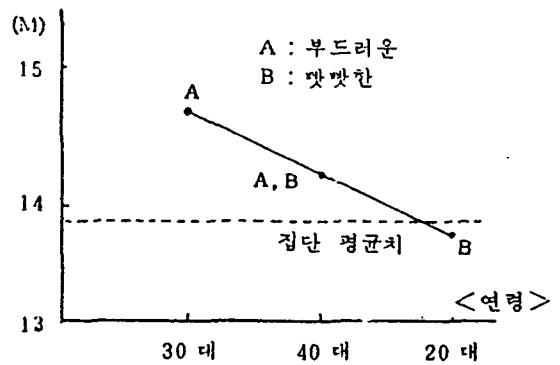


〔그림 2〕 스타일선호와 연령과의 관계

〈表 8〉 연령에 따른 의복의 질감 선호

질감	연령	연령 별 Mean			F
		20대	30대	40대	
		N=514	N=49	N=65	
촉감	감	13.66 (B)	14.73 (A)	14.21 (A,B)	8.01**
두께	계	14.15 (A)	13.62 (A,B)	13.36 (B)	4.90**
중량	광택	13.58	13.35	13.21	1.36
투명	투명	13.55	13.45	13.29	0.55
	투명	9.79 (A)	9.20 (A,B)	8.76 (B)	5.76**

(문자)는 Duncan의 범위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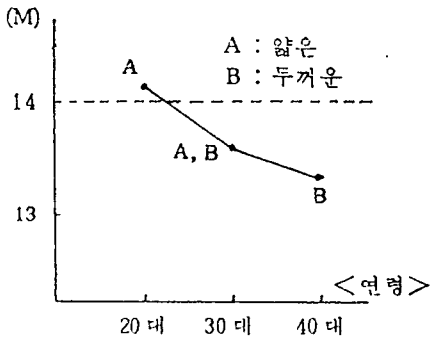


〔그림 3〕 촉감선호와 연령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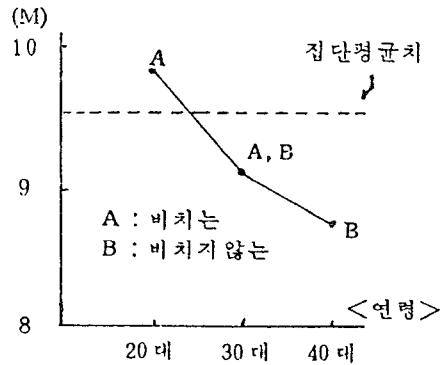
한다고 한 研究結果³¹⁾대로, 부드러운 촉감은 3·40대에서, 맛맛한 촉감은 20대에서 選好되었으므로(그림 3), 얇은 옷감은 20대에서, 두꺼운 옷감은 3·40대에서 選好되었다(그림 4). 또한 투명경도에 대한 選好는 비치는 옷

〈表 9〉 연령에 따른 의복의 무늬 선호

무늬	인명 N	20 대		30 대		40 대		計
		실 제 치	기 대 치	실 제 치	기 대 치	실 제 치	기 대 치	
꽃 무늬		18	18	1	3	4	2	23
점 무늬		9	20	7	3	10	3	26
전통 무늬		5	7	3	1	4	4	12
기하 무늬		96	90	8	14	11	11	115
추상 무늬		52	50	8	8	4	6	64
無地		333	327	51	50	34	41	418
計		$\chi^2=44.65$ DF=10 $p<.01^{**}$						658



[그림 4] 두께 신호와 연령과의 관계



[그림 5] 두명징도 신호와 연령과의 관계

값이 20대에서, 비치지 않는 옷감이 3·40대에서 나타났다[그림 5].

e. 무늬 선호

의복의 무늬에 대한 선호는 연령에 따라有意性을 보여〈表 9〉, 2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³¹⁾, 줄무늬와 無地가 스포티한 스타일에 많이 사용된다고 한 것처럼 20대에서는 줄무늬와 無地가 선호되었으며, 30대에서는 점무늬, 전통무늬가, 40대에서는 꽃무늬와 점무늬 등 좀더 우아한 무늬가 선호되었다. 따라서 成人女性은 연령별로 볼 때 20대와 3·40대로 크게 두그룹으로 나누어 衣服디자인 선호에 差異를 보여, 30세를前後하여 個人의 태도가 고정된다는 것³²⁾을 알 수 있다. 以上の 研究結果로서 身體的·社會的 自我概念은 成人女性의 衣服의 色과 質感에 대한 선호에 相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身體的으로 社會的으로 만족하고 있는 女性일수록 밝고 선명하고 따뜻한 색계통의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얇은 옷감의 옷을 좋아하였다. 그러나 本 研究은 對象이 서울市内에 거주하는 成人女性중 극히 一部分을 標集한 것이기 때문에 擴大解析에

는 制限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研究에서는 다양한 社會계층의 女性을 對象으로 그들의 嗜好하는 衣服디자인이 어떤 心理的 要因과 關係가 있는가에 關心을 두고 擴大研究되기를 바라며 本 研究의 結果가 기성복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로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期待한다.

參 考 文 獻

- 1) McJimsey, H.T.,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2nd ed.), Ames: Iowa States University Press, 12, (1973).
- 2) 閔榮順, 發達心理學, : 서울教育出版社, 373-388, (1980).
- 3) Warden Jessie & Cdquett, Jean., Clothing Selection by Adolescent Boys, J. of Home Economics, Spring, 37-40, (1982).
- 4) Ryan, Mary Shaw,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

- ton, Inc., 82-85, (1966).
- 5) Fisher, S. & Cleveland, S., Body Image Boundaries and Style of Life, *J.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52, 373-379, (1956).
 - 6) Ford, Imogene M. & Drake, Mary Frances,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 182-196, (1982).
 - 7) 梁明喜, 青年期 勤勞女性의 衣服選擇行動과 自我概念과의 相關研究, 碩士學位 論文·淑大 大學院, 35, (1983).
 - 8) Warr, P.B. & Knapper, C., The Perception of People and Events, London; John Wiley Sons, 33, (1968).
 - 9) 辛玉順, 自我正體感과 外貌를 通한 自己概念 및 個性에 關한 衣服心理學의 研究, 碩士學位 論文, 서울大 大學院, (1977).
 - 10) 金光鏞, 自我正體感과 衣服의 關心度와의 關係, 대한 가정학회지, 21, 19-28(1983).
 - 11) 朴贊富, 女大生의 衣服行態와 自我概念과의 關係에 關한 研究, 仁荷大 人文科學 研究所 論文集, 4 집, 175-183, (1978).
 - 12) 문 선희, 한국여성의 의복색채 기호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 대학원, (1980).
 - 13) 정삼호, 부산시 여대생의 衣服關心과 패션디자인 選好度조사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2, 43-52, (1983).
 - 14) Compton, N.H., Body Build, Clothing and Delinquent Behavior, *J. of Home Economics*, 59, 657-660, (1967).
 - 15) 李仁子, 性格과 衣服「디자인」選好問의 相關關係 研究, 대한 가정학회지, 14, 785-799, (1976).
 - 16) 李仁子, 女大生의 衣服「디자인」嗜好와 興味問의 相關研究, —color, line, texture를 중심으로— 대한 가정학회지, 12, 663-677, (1974).
 - 17) 林淑子, 의상 選擇의 동기에 관한 연구, 韓國 生活科學 研究院, 論叢, 第18輯, 137-148.
 - 18) Hoffman, Adeline, Clothing Behavior Factors for a Specific Group of Women Related to Aesthetic Sensitivity and Certain Socio-Economic and Psychological Background Factors, cited by Ryan, M.S. op. cit., 92 (1966).
 - 19) Creekmore, A.M,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ed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3).
 - 20) Compton, N.H., Personal Attributes of Color and Design Preferences in Clothing Fabrics, *J. of Psychol.* 54, 191-195, (1962).
 - 21) Matthews, L.B., Fabric Preferences Perceptual-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Obesity, *J. of Home Economics*, 61, 177-182, (1969).
 - 22) 鄭元植, 自我概念 檢査法 要綱, 서울 코리아 테스팅 센타, 4, (1968).
 - 23) K.S.-A 0011 규정 유색색, 무색색, 관용색 중 18 가지를 골라서 사용하였음. ; 權將 色名 大辭典, 韓國色彩 研究所 監修, 서울 : 色研社 (1964).
 - 24) Latzke, A & Hostetter, H.P., The Wide World of Clothing, N.Y; The Ronald Press, 96, (1968).
 - 25) 韓賢淑, 衣裳 디자인의 要素가 女性心理에 미치는 影響, 碩士學位 論文. 弘大 産業 大學院, (1977).
 - 26) 李明姬, 禮儀·貞淑性과 審美性을 中心으로 한 大學生의 衣服 行動과 關聯된 心理의 變因研究, 博士學位 論文, 梨大 大學院 (1983)
 - 27) 洪今姬, 李恩英, 成人女性의 性格 特性과 衣服 行動問의 關係 研究 : 年令과 職業 變因에 의한, 韓國衣類學會誌, 7, 1-8, (1983).
 - 28) 金順粉, 年齡階層에 따른 衣服行爲의 比較研究, 韓社大 專門大學 論文集, 4, 145-158, (1979).
 - 29) 白雲鵬, 標準 統計의 方法, 서울 : 博英社, 276, (1980).
 - 30) Horn, M.J. & Gurel, L.M., The Second Skin, (3rd ed.), N.Y.: Houghton Mifflin Co., 158, 143, 195, (1981).
 - 31) 朴吉順, 織物文樣의 嗜好와 內向性-外向性 性格과의 關係, 碩士學位, 論文. 梨大 大學院(1982).
 - 32) 李仁子, 服飾 社會心理學, 修學社, 123, (1984).